

● **주님 세례 축일**

"마귀를 쫓아버립니까?"

"쫓아버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의 기억이 생생이 떠오르는 문답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단호히 고백하며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결심한 대로 이기심을 쫓아버리고 하느님만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은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적이던 내 삶과 신조는 세례를 받는 순간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 사랑과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과 똑같이 욕심이 앞서고 세상적인 일에 나의 중심이 더 가 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와야 하지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캄패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캄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믿고 삽니까?"

캄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먹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나를 믿고 살지 누구를 믿고 살겠냐고 험자랑을 하며 캄패는 사오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달리 먹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 세례는 왜 받느냐? 이제 무엇을 믿고 살려고 그러냐?"

그 때 이 캄패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을 믿고 산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믿고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느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변화돼야 합니다. 바로 사도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세례를 받고 즉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서히 변화됩니다.

제 얼굴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기에 깨끗하지요? 어떤 때 저는 하루에 두 번씩 면도를 합니다. 유난히 수염이 많기 때문이지요. 하루라도 수염을 깎지 않으면 덩수룩해지는데 만약 한 주간 내내 면도를 안 한다면 얼굴에서 수염만 보일 것입니다.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때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면도를 해야 지금의 얼굴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결심하고, 일주일에 주일 미사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돌아보고 다짐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하찮은 수염도 매일 깎아야 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매 순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닮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면 역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세례 때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오금동본당 주임)

기러기들의 지혜

V자를 그리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왜 그런 형태로 날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기러기 무리는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최소한 71퍼센트는 더 넓은 거리를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기러기가 젖는 날개 짓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다른 기러기에게 상승기류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기러기 한 마리가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 기러기는 대기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했던 기러기는 재빨리 대열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대열의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지치면 뒤쪽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는 금방 다른 기러기가 대신합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은 앞서가는 기러기들이 속도를 유지하는데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한 기러기가 병에 걸리거나 사냥꾼의 총에 부상을 입어 낙오되면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들이 낙오된 기러기가 지상에 내려갈 때까지 도움을 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기러기는 낙오된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함께 머물다가 다른 기러기들의 대열에 합류하거나 자신들의 대열을 따라갑니다.

● **주님 세례 축일 기도**

온세 인자 만는 찬미	상한 이 의	만백 모두 노래	성의 모습 함께 불러	구세 주에 빛나 셨으니 기뻐 들하며 찬양 드리네
인생 에 세 스스로	의 수 례 의	젊은 연세 깨끗 하고 낮추	시절 삼십 하고 이어	보내 신다 을적 에물 속에 가시 네
세 세 강	상 죄 의 에서	당신 피로 강물 속에 나오 심을 기뻐	피로 강물 속에 나오 심을 기뻐	세 실 예 수 잠 기 셨 다 가 바 라 보 면 서 두 려 워 하 네
드 당 거 성	높은 신의 기록 한 성령	하 늘 에 서 아 들 의 은 사 들 을 위 대 한 힘	아 버 지 음 성 드 려 내 시 고 배 푸 옵 시 는 내 려 오 도 다	
예 비 마 임	수여 천 한 마 음 에 위 해	소리 높 여 우 리 들 을 밝 은 빛 을 끼 끗 하 게	간 구 하 오 니 보 호 하 소 서 부 어 주 시 어 살 게 하 소 서	
성 부 와 우 리 게 생 명 과 세 세 에	성 령 께서 알 려 주 신 진 리 이 신 무 궁 토 록	천 상 빛 으로 구 세 주 에 수 구 세 주 에 수 영 광 드리 세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1월 구역모임
 - ▶1구역: 1/26(토) 오후 6시, 한승중형제집
 - ▶2구역: 1/13(일) 오후 7시, 김직원형제집
 - ▶3구역: 1/27(일) 미사후, 박용대형제집
 - ▶4구역: 1/26(토) 오후 7시, 이 민형제집
 - ▶6구역: 1/19(토) 오후 7시, 이우원형제집
- 울뜨레아 모임
 - ▶1월 20일(일) 미사후 제의실

- 바뇌기도회 모임
 - ▶1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이명희형제집

- 주문하신 책 찾아가세요
몇 달 전 본당에 주문했던 영성서적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교우들께서는 오늘 미사후에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장님께 알립니다
2008년 주소록을 만드려하오니 각 구역장님께서는 교우들의 현주소와 영어 이름을 파악하시어 다음 미사때까지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192@hanmail.net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 ▶주소 :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 ▶가입방법: 먼저 굿뉴스에 가입하시고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 또한 청소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오늘은 교무금 내는 날입니다

- 주간 전례
 - ▶1 월 15일(화) 밤 8시, 연중 제 1주간화요일
 - ▶1 월 17일(목) 낮 12시, 성 안토니오기념일
 - ▶1 월 17일(목) 밤 8시, 성 안토니오기념일
 - ▶1 월 19일(토) 낮 12시, 연중 제 1주간의토요일

- 2008년 꾸르실리스따 연례 피정
일시 : 08년2월 1일(오후 6시)- 3일(오후5시)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참가비 : \$ 200, 신청마감 : 1월 27일

- 성당 초, 제병, 포도주 봉헌 받습니다.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이날 본당에서 사용하는 초와 가정 초를 축성하는 날입니다. 일 년간 성당제대에서 사용하게 되는 제병과 포도주 그리고 초를 봉헌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 때 사용하는 초도 주문받습니다.
제대초 \$20*30=\$600 ,포도주 \$15*6=\$ 90
제 병 \$500 개인초 \$15
봉헌 및 신청 : 본당 총무님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미 사 전 레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이 민

화 답 송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188) 천상의 양식
퇴 장 (4) 찬양하라

독 서
1월 13일 이 민 이활란
1월 20일 이상재 이향숙
1월 27일 장명길 장용경

봉 헌
1월 13일 박용대 박명옥
1월 20일 이 민 이활란
1월 27일 이상재 이향숙

복 사
1월 13일 경은 한힘
1월 20일 하람 지현
1월 27일 지홍 현재

2008년 1월 6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29.25
교 무 금:	\$ 50.00
Total:	\$ 679.25

2008-02 2008. 1. 13.
주님세례축일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